유랑하는 청년과 여성 몸-장소라는 로컬리티

-최인호 초기 중단편 소설들을 중심으로-

조영란*

차례

1. 최인호 소설에서 공간의 의미
2. 유랑하는 청년 : 비자발적인 이주에서 자의적인 이동
3. 여성 몸-장소라는 로컬리티
4. 무너진 '공간'에서 도약을 위한 '장소'로 : 권위적 남성성의 종말과 성장의 시작

〈국문초록〉

최인호 소설에서 특히 도시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일찍이 도시문학가라는 평을 받은 이래로 도시공간에 천착한 최인호 작품에 대한 분석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였다. 소심한 도피성향과 과장된 파괴행위를 주도한다거나 주체의 포기나 소멸 혹은 소외를 경험한다는 논의를 담아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청년들을 도시 소설 주체로 규정지어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이에 따른 실존적 고통이나 한계 상황을 포착하는 인물로 규정하거나 적극적 현실비판을 주도하는 인물로 정의내리는 의미있는 논의도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논자는 당시의 소설 속 도시가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장소성에서 벗어나 장소상실의 지표로 작용함으로써 공간성 층위로 전위되는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데 일면 동의한다.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존 공간에서의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일탈과 유랑인으로서의 변이과정을 거쳐 여성 몸-장소를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착하는 능동적 주체였음을 논증하려 한다.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초남성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초남성적인 개발 국가에서 남성다운 엄격함이나 체면은 국가적 위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대한 내부의 저항을 억압하는 합리화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 때 사회 내 주체는 수동적이고 무력한 지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가부장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남성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국가 질서에 복종하고 불만에 대한 공적 발언을 억제하는 상태로 실존한다. 그렇다면 최인호 초기 소설의 남성 주인공들 역시 당시의 이러한 사회, 정치적 영향권 하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의 존재 방식, 사회에 정주하는 양상을 단순히 무력화 된 남성성이라는 단어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에 논자는 최인호 소설의 청년들이 비록 사회적 지반 곧 아버지 공간으로부터 타의에 의해 벗어났지만 곧 기존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세우고 자의적으로 유랑하는 주체로 변모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여성의 몸은 그들이 새로운 주체로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그곳에서 남성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강한 남성상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성을 지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물질적인 성격 등은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을 핍진하게 그려온 최인호의 소설에서 공간성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존재양상에 대한 변화상을 탐구하는 문제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핵심어 : 최인호 소설, 남성성, 도시 공간, 여성 몸-장소, 장소상실성, 주체 변이, 헤테로토피아

1. 최인호 소설에서 공간의 의미

최인호 소설에서 특히 도시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일찍이 도시 공간과 도시화에 따라 파편화 문제를 내면화한 개인 주체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포착하여 도시문학가라는 평[1]을 받은 이래로 도시 공간에 천착한 최인호 작품에 대한 분석은 지속되어 왔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년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소심한 도피성향과 과장된 파괴행위[2]를 주도한다거나 주체의 포기나 소멸 혹은 소외를 경험[3]한다는 논의를 담아왔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을 도시 소설 주체로 규정지어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이에 따른 실존적 고통이나 한계 상황을 포착하는 인물로 규정[4]하거나 적극적 현실비판을 주도하는 인물로 정의내리는 논의도 제출된 바 있다.[5] 이에 논자는 당시의 소설 속 도시가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장소성에서 벗어나 장소상실의 지표로 작용함으로써 공간성 층위로 전위되는 원리를 구현"[6]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주체들이 기존 공간에서의 일탈과 유랑인

1) 김현, 「재능과 성실성」, 『잠자는 신화』, 예문관, 1974, 14쪽 참조.
2) 김현, 「초월과 고문-한 소설가의 세계인식에 대하여」,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43쪽.
3) 나병철, 「최인호론-비동일성의 시선과 낯설게 하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343-347쪽.
4) 최효찬,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 연세대 박사논문, 2006, 56쪽 ;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성」,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74쪽.
5) 최인호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의 작품들은 문제성과 문학성을 모두 내포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중 특히 도시문화와 문학의 관계를 다룬 단편들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남진우, 「도시입성과 도시탈출」, 『바벨탑의 언어』, 문학과지성사, 1989; 이은실, 「1970년대 도시소설의 양상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0; 임헌영, 「도시와문학-한국문학에서 도시의 의미」,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학사, 1988; 조남현, 「도시적 삶의 징후들」, 『현대문학』 1979.11, 현대문학사; 홍성암, 「도시 소설의 주인공 설정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12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6) 장일구, 앞의 글, 78쪽.

으로서의 변이과정을 거쳐 여성 몸-장소를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착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공간은 인간 존재의 명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개념이다. 공간은 인간에게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경험과 기억을 제공하며, 또한 인간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과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7] 따라서 공간의 변화 양상은 그곳에 정주하는 개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설의 배경이 된 당시의 압축적 근대화는 남성위주의 폭발력, 힘을 상징하는 공간을 통해 구현되었다. 기존 공간을 아버지 세대를 중심으로 구축된 남성성 위주의 사회적 공간[8]이자 지형이라 한다면, 후속 세대의 청년들에게 있어 그곳은 욕망의 대상인 동시에 좌절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위 압축적 근대화가 개인의 내밀한 삶에 미치는 사회적 혼돈, 무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삶의 목표가 경제적 재편에 종속되면서 올바른 시민화에 앞서 경제적 근대화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무의식과 이러한 세속화 혹은 생존의 문제를 충족하기 위한 의욕들은 불구적 사회상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한 청년들의 모습과 그들이 정주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그 비극적 상황은 소설에서 집의 무너짐의 알레고리나 거리를 묘사하는 그로테스크한 시각효과 등을 통해 형상화 된다. 우선 거리 혹은 방과 같은 공간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사되는데 여기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배제된 불안하고도 어두운 모습만이 존재한다.[9] 또한 기거하던 집의 상실이나 파괴 양상도 소설 서사에 자주 출현한다. 알다시피 집은 인간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이다. 또한 실증적인 가치를 넘어선 꿈과 이상 등이 응집된 곳으로 사람들을 중심성에 대한 의

7) 마르틴 하이데거,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992, 471쪽.
8) 김현미, 김영옥 엮음,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개념」,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하나의 문화, 2001, 48쪽.
9)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민음사, 1990, 132-133쪽.

식으로 이끌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의 파괴는 기존 사회질서 내에 편입하지 못한 청년의 중심성을 비롯한 자아의식의 상실을 의미한다.

소설에서의 청년들은 공간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과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회의,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체감할 뿐 아니라 죽음의 충동까지 겪는다. "도대체가 미래의 행복이니, 미래의 낙원이니"는 "밸 빠진 소리"일 수밖에 없었고 삶의 희망은 "금방 이십층짜리 빌딩"처럼 세워졌다가도 "금세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10]는 듯 사라진다. "우리는 저주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셈이오. 우리는 지금 오로지 까뭉개고, 부수고, 가진 것을 박살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소"[11]라는 고백이 그 고통의 강렬함을 압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시공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비합리적이고 직관적인 것 혹은 인간의 충동적인 것들은 도시적 삶의 유형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기계적 정확성의 형식으로 순치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12]과 더불어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감각들의 충돌로 사유[13]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도시공간으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들은 새로운 환경을 찾아나서는 시도를 꾀한다. '중심'은 지표면의 특정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파괴될 경우, 다른 중심이 그 옆에 혹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14] 그리고 그 과정은 이주자이자 유랑민으로 변이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15]

---

10) 최인호, 「침묵의 소리」,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233쪽.
11) 최인호, 「미개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264쪽.
12) 게오르그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도서출판 길, 2007, 251-252쪽.
13) 그램 질로크 저,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15쪽.
14)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 심승희 역, 도서출판 대윤, 1995, 240쪽.
15) 이 글에서는 1960-70년대 최인호의 중단편 소설 중 여성의 몸이 '장소'로서 부각되는 다음의 소설들을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최인호의 중단편 소설을 선정한 이유는 이후 장편 소설에서 볼 수 없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박을 올려라」, 「전람회의 그림1」, 「무너지지 않는 집」, 「2와 1/2」(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3, 문학동네, 2002).

2. 유랑민의 탄생 : 비자발적인 이주에서 자의적인 이동으로

최인호 소설의 청년들은 기존 세대의 압축 근대적 양상을 띤 거주지와의 구획짓기를 통해 오히려 철저히 스스로를 배제시킨, '타자 되기'를 재현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여기에서 타자성의 개념은 단독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내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외부성을 인정하되 안과 밖을 뒤섞는 방식을 일컫는다.[16] 이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장소로 물리적 이동을 감행하며 기존 규율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주체이자 유랑민 되기를 자행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했던 사회와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됨으로써 성찰의 장소를 확보하게 된다. 청년들의 이동 혹은 유랑은 최초의 공간 또는 정서적 원점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며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유랑을 통해 삶의 양식으로부터의 날카로운 단절과 그 리듬에 깊숙한 균열[17]을 만들기도 한다.

「두레박을 올려라」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 밖으로 가출을 감행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집은 억압과 구속의 공간이자 비루함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악몽같은 공간이다.[18] 공동체의 윤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소통이 배제된 공간인 것이다. 주인공에게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집은 교환적(아버지의 무관심을 당연시 여기거나 어머니 손에 낀 반지를 훔치는 행위)이거나 불안함(어두운 밤에 학교에 가야 한다고 종용하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주며 존재감이 부재한(마치 기도하듯 눈을 감고 외면하는 동생) 곳이었다. 주인공의 가족들은 자신의 이익과

16) '로컬리티'와 '타자성'에 대한 담론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10-11쪽 참고.
17) 마무드 다르위시, 송경숙 역, 「유랑에 관하여」, 『ASIA』 8, 2008년 봄호, 38쪽.
18) 부르디외의 용어로 말하자면, 주인공의 가족들은 (유사한) 아비투스를 갖는데, 문제는 이 아비투스가 계급을 가르고 나누는 기준이 되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는 집단에게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그 상징적 폭력을 동원하여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한다는 사실이다.(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278-325쪽)

관계될 때 이외에는 언제든 이방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인공에게 집은 안정감을 주는 휴식처가 아닌, "양말을 갈아신기 위해 돌아가는 곳밖에는 되지 않"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뿐이었다. 생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지녀야 할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듯, 공간은 인간에게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주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부재한 곳, 정주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은 주인공을 그 공간 속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주인공은 '타자 되기'를 수행한다. 이때 가출은 '타자 되기'의 한 방법이다.

「2와 1/2」에서 주인공은 서른 살 회사원으로, 타인의 "호출"로 인해 정주 양상이 바뀌게 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티푸스 주사를 맞고 아픈 몸을 버텨내고 있던 그에게 느닷없는 외부로의 호출이 발생한다. 그 중 하나는 지역개발로 인해 아버지 산소가 이장해야 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건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주택의 문간방 여인의 죽음으로 인한 경찰의 조사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실재해야 할 공간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한다.

> 며칠 전 아침신문 아래칸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된 분묘이장 공고를 보았는데, 바로 아버님 산소 있는 곳에 새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절만 너머나 이장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나는 일요일 아침에 시외버스를 타고 아버님의 산소는 그 커트 라인에 들어가는가, 제외되는가를 알아봐야 하는 스케줄이 있는 것이다.[19]

"옷입고 나오쇼"
"아니, 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쨌든 나와보쇼."

19) 최인호,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32쪽.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깨더났던 나는 그제서야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았다. (중략)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도대체 뭡니까?"

"살인사건입니다."[20]

그를 외부의 낯선 공간으로 내몬 것은 표면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 죽음의 원인은 다름아닌 약자에 대한 권력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성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일본 군인에게 이유모를 구타로 죽임을 당했고, 낯선 여인 역시 자신의 "육감적인"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낯선 남자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죽음은 예견하지 않았던 돌발상황이자 스스로의 죽음을 자신이 확정할 수 없는 주변인의 운명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고통은 "지독한 아픔"으로 '나'의 육신을 파고들었고 '나'는 자신의 존재 장소에 내장된 폭력성을 인지하게 된다. 권력자들에 의해 포섭된, 그들의 지배력이 강화된 공간에 속박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러왔음을 깨닫는다.

어제도, 그제도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줄곧 부림을 당하고 있었다. (중략)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네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중략) 이처럼 멍청하게 이상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중략) 분명히 예매권을 사두었는데 미리 예약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수없는 착오 속에서 나는 살아온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걸어온 것과 상태가 아니라 탁한 물 밑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밀려온 상태였다. 그곳이 어딘가 돌아보려면 나는 또다시 밀려와 있었다.[21]

떠나야만 했던 운명을 지닌 채 살아왔다는 회고는 이내 자신의 의지로

20) 최인호,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35쪽.
21) 최인호,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41쪽.

그곳과의 결별을 고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불거진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대문자 국가로부터의 호출에 순응하지만은 않을 것을 결심한다. 즉, 생존을 위해 머물렀던 기존 공간의 폭력성을 통해 자신이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 떠나야 함을 깨닫는 사건이 촉발된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의 주인공은 자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 장소를 맴도는 인물이다. '나' 역시 폭력적 자본에 의해 아버지 세대의 사회로부터 강제적 단절을 경험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특권화를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욕망과 이를 파괴하게 만든 무형의 대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 상에 놓인 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의 편린을 떠올리게 하는 한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이전의 공간이 실은 평온함을 가장한 불의와 모순의 곳이었음을 깨닫는다. 그의 현재를 지배하는 무력감과 혼돈은 곧 당시 사회체제로부터 비롯된 부당한 속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저주하는 등의 수동적 대처는 무용하였다. 그는 기존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례를 거친다.

> 일테면 그녀의 아버지가 채무 때문에 그 집을 내놓고 나와야 했듯이 우리 아버지도 채무 때문에 그녀 아버지에게 쫓겨나와야 했다는, 근본적인 그녀와 나 사이의 깊은 심원을 이루고 있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중략) 어리둥절해하는 인부를 뒤에 두고 나는 이제 미련없이 그 집과 결별하기로 작정했다. 이상한 요술쟁이들. 까뭉개졌다가도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것처럼 말짱하게 도로 일어서게 하던 나의 요술쟁이들과도 결별하기로 작정했다.[22]

"그녀와 나 사이의 깊은 심원을 이루고 있는 일들은 모두 우리의 일들

22) 최인호, 「무너지지 않는 집」,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69-70쪽.

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고백은 그가 응징하고자 한 대상이 실은 자신의 외부를 억압하고 있던 세력이었다는 깨달음이기도 하였다. 그는 지배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기존 공간의 속박을 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미련없이 그 집과 결별하기로 작정"한 '나'는 아버지 세대로부터의 상처, 억압 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로 재배치 된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즉, 적극적인 유랑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전람회의 그림1」은 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넓혀 청년 주체가 지닌 정주함에 대한 욕망의 뿌리를 더듬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주인공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안착하고자 이상적인 여성을 찾아 헤매는 청년이다. 작고 아담한 주인공이 소망하는 여성상은 거구의 여인이다. 소설에서는 빈번하게 상대 여성의 거대함과 대별되는 주인공의 왜소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삶의 공간으로부터 괴리되어 위축된 주인공의 의식을 드러내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에 대해 "더러움과 권태와 피로가 가득한" "수치"와 "자기기만"이 부유하는 공간이라는 부정적 의식을 내보인다. 도시의 '중심'의 경우 '문명 가치가 응축된 풍요로운'[23] 양상을 지니는 것을 고려해볼 때 그가 떠도는 거리는 황폐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부유하는 주변부적 공간이다. 그는 웃음을 잃어버린 거리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조차 한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채로 지냈다는 고백을 하며 "수상스런 적개심"이 만연한 도시 속에 타자로 살게 된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던 중 이상형인 한 여인과의 조우를 통해 그의 유랑하는 행위는 어느 순간 삶의 욕망을 되찾게 해주는 주도적 행위로 변모한다.

> 나는 거리의 육교를, 지하도를, 사거리를 뛰어서, 바람처럼 뛰어서 이제는 그녀가 약속한 대로 범람하는 나일 강 강 같은 그녀의 육체를 갖기 위해서 달려갔다.[24]

23)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 · 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74쪽.

무력하게 부유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던 과거의 자신을 떠나 내면에 지닌 욕망을 좇게 된 그에게 유랑은 일종의 실험, 탐색, 이행의 실천이기도 하였다.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권력에 고착되어 있는 기존의 관념과 욕망을 뒤흔들고 강제된 동일성에 반대하려는 적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적 세계가 잠식하고 있는 물적 욕망을 배제하고 새로운 지반을 향한 욕망을 촉발시켜 분자적이고 유목적인 실험[25]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설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도시 공동체에 타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근대화 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는 상품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교환원리와 도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지배체계는 모든 것을 도구화, 사물화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세계에서 개인의 특수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반대로 특수한 것의 배척을 통해 성립된 합리적 동일성을 근거로 사회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화된 사회는 주체를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의식마저도 사물 세계가 행하는 권력에 종속시키려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계층의 자본 독점화로 사회를 하나의 전체적인 조직으로 통합시키면서 인간이 세운 사회 자체가 억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26]로 나타난다.

이 때 청년들은 사회 경계 밖으로 향하는 유랑민으로서의 역할을 자행한다. 여기에서의 유랑민은 단순히 집이 없다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유랑은 더 이상 '쫓김'이라는 수동적 삶의 표상이 아니다. 유랑은 진리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옳은 길을 찾기 위한 자발적인 여정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목적 주체는 남근-이성적 중심적 독단론의 위력으로부터 사유를 자유롭게 독립시키는 주체를 의미

24)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1」,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124쪽.
25) 그를 선택했던 여인을 위해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그러하다. 특히 '웃음'을 유발해야했던 두 번째 과제는 의미심장한데, '웃음'이라는 기획이 주는 가벼움, 민첩함, 전복성 등은 우울의 시대를 전복시키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지 브라이도티 저, 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262쪽)
26)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 문학과 지성사, 1993. 122쪽.

한다. 유목민은 고착성에 대한 모든 관념, 욕망, 혹은 향수를 폐기해 버리는 종류의 주체를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본질적인 통일성 없이, 그리고 그러한 통일성에 반대하면서 이행, 연속적인 이동, 상호협력적인 변화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다. 이는 자아를 재현하는 지배적인 방식들에의 동화나 상동화에 저항하는 한 형태[27]이다.

최인호 소설 속에서 청년 남성들은 자본주의를 포함한 동일화의 횡포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자 그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유랑인으로서의 삶을 자처한다. 외부의 억압으로 촉발된 이주는 이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동으로 전면화 되는 것이다.

3. 여성 몸-장소라는 로컬리티

기존 사회망 속에 포섭되지 못한 채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들은 자신만의 구역을 확정하기 위해 새로운 경계 수립을 진행하게 된다. 그 방식은 이전 시기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곧 경계의 확장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작은 단위를 포섭하면서 성립된다.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는 행위는 바깥으로부터의 영향이나 혹은 공격에 무력하게 노출되지 않으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 마지막 경계심급은 신체다.[28] 그렇다면 붕괴되고 허물어져 가는 기존의 공간을 대체할 장소로 '몸' 특히 여성의 몸은 그 가능성을 내재한다. 우선 여기에서 몸-장소는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영토"가 아닌,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변화하는 복수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첩되고 상호 교차하는 장소들을 낳는다. 또한 몸은 그 자체의

27)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59-60쪽, 63쪽.
28)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 · 배정희 옮김, 「신체공간」,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333-334쪽.

독특한 “물질성”을 갖는 하나의 물질적 경관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몸은 곧 “성적 욕망”이나 “자연적 본능”과 관련된 사회적 실천들이 체현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소로서의 몸은 다층적인 장소들과의 복잡한 관계들이 유일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있는 개인의 지점이자 위치이다. 따라서 장소가 갖는 정체성은 장소가 맺고있는 복합적인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유동한다.[29] 이러한 특징을 지닌 여성의 몸은 여성‘성’을 소거한, 하나의 물질적 장소로 기능한다. 그리고 가상과 환상의 장소이자 혼종성을 띤 장소 헤테로토피아와 흡사한 성격을 띤다.

「두레박을 올려라」에서 주인공 남성과 관계맺게 되는 여성의 몸은 주인공에게 있어 잃어버린 젊음, 그 열정을 돌이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래의 대학생들이 다들 “죽은 체하는 자벌레”처럼 허공만 맴돌다 제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제물탱크 속에 갇힌 조개”처럼 소소한 자극에도 움츠러드는 나약한 형상에 갇혀있는데 반해 그애의 노랫소리는 “젊고 힘있고 자랑스러웠”다. 그 노래를 통해 주인공은 “죽어버린 욕망이 고개를 들고, 핏속에 잠든 젊음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 나는 한번도 여인의 육체에 관해 욕망을 가져본 일은 없었다. 맹세코 절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의 약점을 잡아 그애와 친해지고 싶었고 또 허락된다면 내가 마련한 빈방에서 그애와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빈 시간이면 그애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욕망뿐이었다.[30]

여기에서 여성의 몸은 그녀의 여성적 속성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녀와의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여성성은 무의미하거나 굳이 드러낼 필

29) ‘젠더’와 ‘장소성’에 대한 논의에 천착하고 있는 린다 맥도웰은 몸-장소 각각이 가지는 위치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위와 같은 특징들을 덧붙여 제안하였다.(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0, 86-89쪽 참조)

30) 최인호, 「두레박을 올려라」,『최인호 중단편소설 전집』, 문학동네, 2002, 22쪽.

요가 없는 상태의 것이었다. 이후 그는 그녀와 함께 "우물보다 낮은 방"에 기거하게 되는데 이곳은 기존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여성의 몸 그 중 '자궁'이라는 장소는 남성 권력에 의한 지배적 위치와 사회체계가 조장하는 보편적 실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경계의 지점에 놓여있다. 즉, 사회적 규범하의 모성성을 거스르고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복수의 경계가 상호중첩되는 장소로 표상된다. 이 때 그녀의 몸은 마치 그들이 함께 머무는 지하방과 흡사한 속성을 지닌다.

지하는 지상의 공간과는 차이가 있는데 곧 비동질적인 공간이자 지상과는 반대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는 지상에서 버림받은 타자들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도 묘사되었듯 그곳은 서로 간의 '점령'이 아닌 '점유'로서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비록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곳이고, 어떠한 자유나 꿈도 허용하지 않는 닫힌 곳이기는 하나 지상처럼 차별과 소외가 난무하지 않고 오히려 나약한 존재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정의 모습을 배태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랠프는 애착을 가지는 장소가 곧 복잡한 애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기에 인간의 복잡다단한 경험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장소는 자체의 특성과 그것이 타인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장소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존경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장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지는 관심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장소는 '인간다움', '유대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 등 인간 실존이 외부와 관계 맺는 것을 드러낸다.[31] 그렇다면 지하 혹은 그녀

31) 랠프는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장소들은 복잡한 애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라 우리의 복잡다단한 경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장소는 자체의 특성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장소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존경이 존재한다고 하였다.(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5쪽, 94-95쪽)

의 몸은 장소로서의 '따뜻함', '편안함'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주변부적 타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공동체는 서로가 다를 것이 없는 약자이지만 서로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져 약자의 힘을 보여주는 일면 저항성을 지녔다. 다시 말해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장소"[32]가 되는 것이다.

「2와 1/2」에서 여성의 몸은 당시의 남성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안겨보고 싶어하는 탐스러운 육체성을 지니고 있다. 기웃거리며 그곳을 염탐하는 남성들이 존재하지만 선뜻 그녀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그녀의 죽음을 통해 호출된 주인공은 상상을 통해 그녀와의 합일된 모습을 그려본다. 여기에서 그녀의 육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외롭고 상한 남성들을 품어주는 장소로 그려진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잊고 지내던 내면의 죄의식 곧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왔던 과거를 상기한다. 즉, 불합리한 세계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며 지내왔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때 그녀의 몸-장소는 나를 포섭하는 세계와 '나'의 관계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나' 개인의 범주를 넘어 "우리 모두"를 떠올리게 하는 공유적 장소가 된다.[33] 그곳에서는 누구든 억압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이해받는 공감의 연대적 형성이 가능하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는 환상이라는 기법을 동원시켜 여자의 몸을 하나의 장소로 상정함으로써 청년들이 느꼈을 당시 사회적 공간에 대한 상실감의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는 우연히 과거 자신의 유년시절을 보냈던 집을 허물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게 되면서 한 묘령의 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 여성의 형상은 '도깨비', '오뚝이', '유령', '터줏뱀'과 같은 기이하면서도 불가사의한 단어들로 규정되는 등 환상성을 지니고

32) 장소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위치, 경관, 시간,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다.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 2인 역, 앞의 책, 306쪽)

33) '나'를 비롯한 남성들은 그녀의 몸을 상상할 때 특정한 개인이 아닌 "우리"로 묘사된다.

있다. 그녀는 장미를 캐는 행위를 통해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어린 날의 기억을 파헤친다. 그녀를 보며 주인공은 자신의 기억을 같이 더듬게 된다. 이 때 그녀의 몸은 아버지 세대의 울타리에 갇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새로운 곳, 그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준다. 이를 통해 그는 아직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나약한 심연을 확인하고 내적 혼란을 겪는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게 예속되어 있던 옛 집 곧 자신을 가두고 있던 과거로부터의 결연을 선언하고 그 굴레 밖으로 걸어나오게 된다.

>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그 여인으로 상기된 또다른 하나의 나와 나로 상기된 또 하나의 그녀와 어두운 여관방, 주간지에서 즐겨 취급하는 그런 정사를 나누고 우리는 하품을 했다. 그녀는 순수한 처녀였다.[34]

여기에서 그녀의 몸이 곧 "또 다른 하나의 나"이기도 하였다는 고백은 주인공에게 잠재되어 있는 타자성과 마주했음을 보여준다. 두 남녀가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 한 개인 내부에 공존하는 자아 곧 공동체성을 담지한 자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 권력을 향한 일말의 동경을 접고 배제되고 버려진 소외된 타자들과 화합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배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람회의 그림1」에서는 왜소한 주인공 남성이 찾고있는 여성은 "몸의 질량감이" 큰 "거대한" 여인이다. 레슬링 경기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는 "도시와 도시, 거리와 거리로 이어진 철근의 숲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공간처럼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녀의 몸-장소는 "수치와 자기기만"이 가득하고 "더러움과 권태와 피로"가 가득 찬 도시의 환멸적 풍경과 구별되는 '구원'의 장소로 형상화된다.[35] 이러한 그녀와의 정사 이후

34) 최인호, 「무너지지 않는 집」,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69쪽.
35) 오유미의 몸은 "봄의 잔디밭", "거대한 바다", "풍요한 언덕", "원시의 초원", "대지", "뿌리" 등으로 묘사된다.

그의 남근이 실종된 사건은 그를 이전의 주체로부터 단절시켜 변이된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의 성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세포를 가져 스스로 분열을 하면서도 엽록소로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짚신벌레가 생물학자들의 학설을 당황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차라리 중성(中性)으로서 인류 학자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는 그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36]

사실 그녀와의 합일이 주는 충만감을 생의 목표로 추구했던 '나'의 무의식에 실은 기존 사회 질서를 담지한 남성적 폭력성이 내장되어 있었다. 곧 남근에 기초한 정체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나'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좌절만을 겪게 된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성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라는 질문은 자신이 지녀야 할 본연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는 절실함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간 지녀왔던 남성성의 무용함을 토로하게 된다. 그리고 '나' 역시도 기존 사회의 중심 공간에서 배제된 타자들의 무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 이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복장을 차리고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이 내게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와 같은 피해자임을 나는 느꼈다. 내가 그들 바깥에 있지 않고 함께 있음을 나는 알았다.[37]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불편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 자신 역시

36)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1」,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150쪽.
37) 최인호, 「전람회의 그림1」, 『최인호 중단편소설』, 문학동네, 2002, 164쪽.

거리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피해자”였고 현재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서의 함양임을 깨닫게 된다. 기존에 의지해왔던 남성성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써 혹은 신화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한 주체를 통해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몸은 폐쇄되고 밀폐된 실체 혹은 외적 과정의 수동적 산물이 아니라 창조되고 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시공간적 흐름으로 용해되는 관계적 ‘생물’, 즉 분산된 에너지와 정보 흐름을 포착하여 그것을 복잡하고 질서 있는 모양으로 결합시키는 ‘생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몸은 환경과 끝없는 상호침투, 상호 개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아-타자 관계를 틀 지운다는 특징을 지닌다.[38] 특히 여성의 몸은 유년기의 집 혹은 뿌리, 토양 등을 연상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 연대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대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간 기억의 프레그넌시가 필요한데, 이는 마치 불가사의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블랙홀”과 같다.[39] 인간의 사회성을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유년에 대한 상징이 모든 뿌리와 이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남아있듯이 여성의 몸이란 곳은 공동체의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로 버려지는 상실감을 경험한 청년 주인공들은 여성의 몸을 통해 원형적 내밀성을 구축하게 된다. ‘타자 되기’를 자처한 그들은 결국 대립하는 이질적인 내면의 타자성을 극복하고 고유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변화를 겪는다.

또한 청년들은 여자의 몸-장소를 통해 세대적 교감을 나눈다. 즉, 분산되고 흩어져있으나 각각의 분자들이 여성의 몸과 합치되는 그 지점에서

38)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이상율・박규택・이보영 역, 『희망의 공간-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한울, 2001, 145-146쪽.

39)공간은 “불투명성, 끓어오르는 에너지, 감추어져서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점착성, 블랙홀 등을 포함한다.(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280쪽)

탈남성적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욕망을 공유하는 복수(複數)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때 여성의 몸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이기도 하다. 이는 곧 '그것 내부에 얼마간의 다른 성질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소'[40] 이자 현재 세계에 존재하지만 결코 장소성을 갖지 못했던 '장소 밖'의 로컬리티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몸이 현실과 허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기존의 인식론을 해체하여 존재와 비존재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 상태, 이로 인해 자아성과 타자성을 구현하는 절대적 사고가 붕괴된 장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의 몸은 거세된 남성성으로 인해 피로해진 남성주체를 안착시켜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재구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4. 무너진 '공간'에서 도약을 위한 '장소'로[41]: 권위적 남성성 종말과 성장의 시작

외부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물질적인 성격 등은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을 핍진하게 그려온 최인호의 소설에서 공간성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존재양상에 대한 변화상을 탐구하는 문제와 연동된다.

당시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발전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초남성적인 개발 국가에서 남성다운 엄격함이나 체면은 국가적

40) 미셸 푸코,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97, 14쪽.

41) 투안의 논의는 공간이론에 인본주의적 시각을 도입했다고 평가된다. 투안은 공간이 장소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공간이 움직임, 개방, 자유, 위협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장소는 정지, 안전, 애정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또한 투안은 인간의 육체가 공간감과 장소감을 형성하는 토대라고 주장한다. 장소가 인간으로 하여금 미지의 공간을 친숙하고 애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19쪽)라고 말한다.

위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대한 내부의 저항을 억압하는 합리화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 때 사회 내 주체는 수동적이고 무력한 지배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가부장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남성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국가 질서에 복종하고 불만에 대한 공적 발언을 억제하는 상태로 실존한다.[42] 이 때 청년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 섹슈얼리티와 대립적인 것이 아닌 여성적 표지를 함의한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층위로 이해해야 한다.[43]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잔 제퍼드가 언급했던 남성성에 대한 논의를 떠올릴 수 있다. 우선 힘, 노동, 결단력, 충성심, 용기를 감싸고 있는 표준적인 몸은 '하드 바디'로 이와 상반된 성병, 부도덕성, 게으름 등을 담고 있는 잘못된 몸은 '소프트 바디'라 칭한다.[44] 인종과 젠더로 구별되는 사고 체계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하드 바디는 남성적인 것으로 소프트 바디는 여성적인 것으로 표준화 된다. 이를 본 논문의 논지에 적용해보면 하드 바디는 자신의 뜻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해 간화된 몸을 사용할 줄 아는 강한 국가를, 소프트 바디는 근대화로 훼손당한 남성의 여성화를 의미한다. 국가 주도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근대화에 내몰린 남성'의 또다른 모습인 것이다.[45] 당시 하드바디로 상징되는 폭력적인 진압시대에 청년 남성은 소프트 바디로 특화되며 그들만의 기표를 형성가능하게 한다. 이는 최인호 소설의 청년들이 지닌 기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는 최인호 단편 소설의

---

42) 김영옥 엮음,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개념」, 『"근대", 여성이 가지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2001, 48-49쪽.

43) 본 연구에서 다루는 텍스트 역시 유신체제 하의 근대화로 남성들이 사회와 역사의 희생자로 재현되고 의미화되고 있음을 은밀하게 투사하고 있다. 남성의 희생의식에서 비롯된 근대화의 모순은 무기력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의심하면서도 끌려가고 있으며 이런 남성성 재현은 한국의 근대화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홍소인, 「문예영화에서의 남성성 연구-1966~1969까지의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논문, 2003, 44쪽 참조)

44) 수잔 제퍼드, 이형식 옮김, 『하드바디』, 동문선, 2002, 43~44쪽.

45) 이효인, 「근대에 내몰린 남성들」,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5, 111쪽.

남성 주인공들 역시 이러한 영향권 하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의 존재 방식, 사회에 정주하는 양상을 단순히 여성화 된 남성성이라는 단어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에 논자는 최인호 소설의 청년들이 비록 사회적 지반 곧 아버지 공간으로부터 타의에 의해 벗어났지만 곧 기존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세우고 자의적으로 유랑하는 주체로 변모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여성의 몸은 그들이 새로운 주체로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그곳에서 남성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강한 남성상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성을 지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46]

한편 남성들은 여성-몸을 거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 소외와 고독 같은 내적 상실과 더불어 아픔, 고통 등의 통증을 겪는다. 주지하듯, 공간의 이동은 삶의 기반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같이 공간의 변화가 주는 압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은 일종의 상실을 의미하고 상실은 개인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남성들은 기존의 자아와 작별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극도의 상실과 좌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47] 또다른 면에서 최인호 소설의 여성들의 몸은 당시 시민의 성규범과 공간분할 규칙에 저항하고, 나아가 기존의 공간 - 허물어지고 더 이상 희망의 공모 가능성이 없는-을 대체할 새로운 몸-장소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성의 몸을 장소로 개념화하는 작업 역시 곧 여성의

46) 심진경은 우리 근대문학사의 대부분의 논의가 '근대성=남성성'이라는 성별화된 시각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남성성은 단순히 여성 섹슈얼리티와 대립된 것으로 한정되기보다 '수동성', '탈성화', '매저키즘', '성적타락' 등 그동안 여성성과 결부되어 왔던 표지들과 결합되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다.(심진경, 「은폐와 투사- 남성 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존재 방식」, 여/성이론 통권 88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3, 101쪽)

47) 「전람회의 그림1」에서 여성-몸을 얻기위해 남성은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동시에 남근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으며 「2와 1/2」에서는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맞고는 '마비상태의 몸'으로 인해 힘겨워한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나' 역시 빚을 지고 쫓겨난 아버지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몸이 남성의 몸과는 또다른 의미 선상에서, 타자화 된 개인이 접속하는 사회적, 공간적 관계망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기에 유의미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는 후속작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3』, 문학동네, 2002.

2. 논문

심진경, 「은폐와 투사-남성 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존재 방식」, 『여/성이론』 통권 88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3, 101쪽.

최효찬,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 연세대 박사논문, 2006, 56쪽.

홍소인, 「문예영화에서의 남성성 연구-1966~1969까지의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논문, 2003, 44쪽.

마무드 다르위시, 송경숙 역, 「유랑에 관하여」, 『ASIA』 8, 2008년 봄호, 38쪽.

3. 단행본

김영옥 엮음, 『"근대", 여성이 가지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2001, 48-49쪽.

김현, 『잠자는 신화』, 예문관, 1974, 14쪽.

김현,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43쪽.

김현미, 김영옥 엮음,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2001, 48쪽.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343-347쪽.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 문학과 지성사, 1993, 122쪽.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5, 111쪽.
장일구,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74쪽.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민음사, 1990, 132-133쪽.
게오르그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도서출판 길, 2007, 251-252쪽.
그램 질로크 저,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15쪽.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 이상율 · 박규택 · 이보영 역, 『희망의 공간-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한울, 2001, 145-146쪽.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59-60쪽, 63쪽, 262쪽.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0, 86-89쪽.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 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74쪽, 333-334쪽.
마르틴 하이데거, 전양범 역,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1992, 471쪽.
미셸 푸코,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97, 14쪽.
수잔 제퍼드, 이형식 옮김, 『하드바디』, 동문선, 2002, 43-44쪽.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280쪽.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94-95쪽, 306쪽.
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1995, 19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10-11쪽.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278-325쪽.

Abstract

Nomadic youth and Female ‘body - place’ as a locality

Cho, Young-Ran

In particular, the space shown in Choi In-ho novel occupies important. Analysis of the early work on urban space cheonchakhan Choi In-ho has been sustained. However, this negative attention for the move was the river of youth to emerge as a hero. Handageona led to "escape timid disposition and exaggerated vandalism" that has put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or the abandonment or destruction experienced alienation. But recently subjected provisions built into the city youth novel structural entity defined as a social problem and its characters to capture the existential pain or limitations due according to the urban situation was made even discuss or make a meaningful definition to the person to lead an active real criticism. The authors agree that this is the time of the novels in the c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by which action potentials over the spacious floor castle in place to provide a comfortable life as an indicator of nest loss out of place" and. And this, as well as a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processes of mutation and nomad as a space for young people subject to overthrow the female body to examine the process of seating in your new life over the place.

The authors believe this is figured to generate an arbitrary in exile to establish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subject soon natjiman outside world by existing rudder from the young people, though

soon the social ground Choi In-ho's novel Father space. The female body serves as a place they can be created as a new subject. Where men are to escape on the existing strong male authority and obtains a new identity with a community property. Physical nature of power and which acts from the outside, such as ideology affects the process of the subject is constructed. Then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spatiality in Choi In-ho's novel pipjin to draw on the urban space is linked with the problem of exploring the exchaning soon for existence aspects of the subject.

Key words : Choi In-ho's novel, A male power, space of the city, A new identity of the subject, Female body-place, Place loss, heterotopia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